

## 예수님의 ‘브로큰’, ‘나의 언브로큰’ : 루이 잠페리니 이야기

시56:1-13

2주 전 미국 여행을 10일간 다녀오면서 책을 읽으려고 가져갔으나 비행기에서 읽기가 쉽지 않았다. 오고가는 비행시간이 14-15시간 반, 나는 비행장에 가기 바로 전에 짐을 대충 싸서 가는 스타일 비행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큰일이었다.

책을 읽다가 하는 수 없이 비행기 영화 제목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드라마 섹션을 보니 10년 전쯤에 내가 언젠가 한번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영화가 있었다. 영화의 제목은 언브로큰(Unbroken)이었다. (\*), 이것은 루이 잠페리니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다.

잠페리니의 일대기를 다룬 <로라 힐렌브랜트>(Laura Hillenbrand)의 원작 소설은 2010년 11월 출간되었고 책이 나오자마자 6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다.

그리고 2013년에 이 놀라운 이야기에 매료된 안젤리나 졸리가 연출을 맡기로 하여 영화로 제작되었다. 책과 영화의 제목은 ‘Unbroken’이다. (\*)

우리말로 의역하면 사람들이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부수려고, 깨뜨리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부술 수 없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잠페리니 이야기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저주하고 증오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그 용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용서하는 권능에서 나온다.

이것이 잠페리니 이야기의 핵심이다.

나는 이 영화에서 그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극한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 영화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잠페리니의 모습을 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영화 자체는 인간의 참된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인간의 사악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등을 잘 그리고 있다.

오전은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영화를 보려고 한다.

Louis Zamperini(루이 잠페리니, 1917-2014, 97세), 위키피디아, 유튜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5월 27일 오후, 미국 공군 폭격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 적도 부근에 추락했다. 근처에는 약간의 기름, 피, 전투기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그때 바다에서 얼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구명보트에 간신히 올라탄 남자, 그는 7년 전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루이 잠페리니 중위였다.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 뉴욕 주 출생, 카톨릭 배경, 두 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주, LA 근방의 토렌스에 거주함.

육상에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잠페리니는 19세의 나이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는 5,000m 경기에서 8위에 머물렀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실망하지 않았고, 1940년 동경 올림픽을 기약했다. 그의 기록은 점점 향상되어 세계기록에 근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동경 올림픽은 취소되었으며 그는 결국 미 육군 항공대로 징병되었다.

바다로 추락한 잠페리니의 앞에 펼쳐진 것이라곤 망망대해, 피에 굶주린 상어 떼, 금세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작은 구명보트, 배고픔, 갈증, 그리고 추위뿐이었다.

잠페리니는 살아남은 두 명의 다른 조종사와 함께 작은 보트에 의지해 태평양을 표류하게 되었다. 나흘 만에 물과 식량이 바닥났다. 하지만, 잠페리니는 절망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빗물을 받아서 마셨고, 새를 맨 손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미끼로 써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드라이버 하나로 상어를 잡아서 그 간을 먹으며 버텼다.

어느 날 밤에는 큰 백상어가 보트 옆을 따라왔다. 루이스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전에 영화에서 본대로 기도하기도 했다. 33일이 지났을 때 동료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다.

40일쯤 지난 뒤에는 햇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47일째 되는 날 3,000km를 표류하다가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일본군이 점령한 마샬 제도였고 두 사람은 일본군에게 생포되었다.

그는 체중이 반 이하로 줄어 뼈만 앙상한 채 35kg밖에 되지 않았다(45킬로그램을 잃어버림) (\*) 잠페리니는 도쿄 근처에 위치한 포로수용소로 보내졌고, 47일간의 표류 고생을 무색하게 만드는 2년여에 걸친 일본군의 무시무시한 고문과 끔찍한 감옥 생활이 이어졌다. 그가 만난 교도관 와타나베는 그야말로 그의 천적이었다. (\*)

그의 별명은 ‘새’(Bird)였는데 그는 광적으로 수용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서로 마찰이 잦아 잠페리니는 그의 구타로 인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질에도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그런 고통의 시간 끝에 마침내 일본군의 항복으로 1945년 9월 2일 잠페리니 중위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었다. 1946년에는 신시아 애플화이트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했다. (\*)

그러나 그의 인생은 평탄치 못했다. “새”에게 당하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일본으로 가서 “새”에게 복수할 생각에 골몰했다. “새”라고 불렸던 교도관은 맥아더 장군이 수집한 40명의 악질 일본군 명단에 들 정도로 지독하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매일 밤 “새”에게 고문당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던 어느 날 밤, 그는 “새”의 목을 조르다가 깨어보니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을 지경에 빠졌으면서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파괴했다. 과거의 아픔들이 너무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잠페리니가 당한 일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트라우마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죄 없이 무려 1730일 동안 옥에 갇혀 목숨을 잃을 뻔 한 것이 트라우마이다.

그래서 나 자신의 과거 어려움을 생각해 보니 트라우마는 하나도 없었다.

진짜 우리에게서 트라우마가 있는가? 나약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그의 아내에게 어떤 분이 LA에서 열리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가자고 권유했다.

당시 빌리 그래함 수많은 사람들 구원, 대단한 설교자 킹제임스 성경

사실 그녀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이혼하려던 생각을 접고 잠페리니를 달래고 달래 겨우 목사님의 집회에 데리고 갔다. 그것은 1949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가기는 했으나 잠페리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목사님의 기도에도 쉽게 결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참가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일하셨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자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던 것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하던 기도 말이다.

그는 그날 자기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다.

잠페리니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구원 초청에 응하여 복도로 걸어 나갔다. (\*)

그 순간 그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새”도 용서할 수 있었다. 포로 생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꾸던 고문의 악몽에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곧바로 술도 끊고 성경을 읽으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큰 기적이 일어났다. 1950년에 그는 일본을 방문해 수감 중이던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 군인들을 만났고 복음을 증언하고 기드온 협회에서 주는 성경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며 그중 몇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였다.

1998년 1월, 81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잠페리니는 자신이 수감되었던 포로수용소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쟁 중 가장 잔인한 고문자였으며

전범으로 기소를 피했던 일명 '새'로 알려진 와타나베를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와타나베는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페리니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그에게 큰 학대를 당했지만 그를 용서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와타나베가 편지를 읽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잠페리니는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으며 와타나베는 2003년에 사망했다.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에 잠페리니의 부모에게 공식적인 조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잠페리니는 70년 후인 2014년 7월 2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97세였다.

이것은 그의 다른 다큐멘터리에 기록되어 있다.(\*). 제목 루이 잠페리니, 은혜로 사로잡히다.

영화, 설교 준비, 그의 일생 이야기, 특히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을 체험하면 원수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 약한 존재, 크리스천이 무언인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영화, 삶이었다.

오늘 잠페리니 이야기와 시편 56편 말씀, 예수님의 죽음이 오버랩 되는 것 같아 오늘 설교 후반부는 시편 56편을 잠시 강해하려 한다. < >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브로큰', '나의 언브로큰'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나는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다. 내 아내가 기쁨의 사람이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집안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다.

킹제임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고소 고발, 이단 시비,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상황

나는 미국 대륙에 42년 전인 82년에 유학을 갔다. 나는 미국, 캐나다 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런 나라들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에 의해 정복이 되고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 전멸이 되고 2-30년 지나면 실질적인 무슬림 국가 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동성애자들의 출현, LGBTQ, 트랜스젠더,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고 이제는 목욕탕도 남녀 구분을 하면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상한 세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함을 가르쳐야 하는 미친 세상

지난 20년 정도 극도로 과학이 발전함: 결국은 인간 통제, 전체주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도래 이스라엘 주변의 전쟁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개입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에 일치한다.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 휴거가 눈앞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울한 기질에 여행 이후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다윗의 지은 시편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요즘 시54편 이후의 시편들

시54, 느기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아니하니까? 하였을 때에 지은 시

1절:

시55, (느기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6절

시57,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헛,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1절

이후로도 비슷한 시가 계속 나온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행13:22), 그런데 왜 이렇게 험한 삶이 그에게 생겼을까?

이상한 아이러니: 그가 하나님을 위해 국가를 위해 큰 일,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다.

사무엘기 17장 이전까지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 골리앗이 등장하였다.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당시 가장 키가 크고 용맹한 사울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다.  
40일 동안 그가 무섭게 하므로 모두가 전전긍긍 할 때에 17-18세의 앳된 청년 다윗이 나타났다.  
골리앗의 모독 43-44  
다윗의 분노와 대답, 45-47, 그리고 무릿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뱀으로  
전쟁은 끝남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진실을 말하므로 사울의 분노가 폭발함  
18:7-8,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함  
이 와중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의 도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감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  
거기서 다윗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미치광이 노릇을 함  
21장 13절

오늘의 시편 56장은 이런 맥락에서 기록되었다. 시편 제목을 보라.  
이때는 그에게 깊은 절망과 의심의 시간  
그의 세 가지 기도 제목

1.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소서(1-4절)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무서울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3).  
육체가 자기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음을 믿는 사람이다(4).
2. 걸림돌에서 나를 건져주소서(5-11절)  
다윗은 의심을 받고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가드에서 말 그대로 행동뿐만 아니라 말투도 “조심”해야  
했다. 그의 등에는 표적이 있었고 오직 주님만이 그를 보호해 주실 수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불법을 써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7).  
그럼에도 그의 현실은 고난의 나날이었다. 8절, 늘 기억하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있다.

그의 기도 9절  
10절, 찬양

3.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 주소서(12-13절)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가 이 시편을 쓴 이유이다. 그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했다. 또한 그는 방랑의 날이 끝나면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경건하게 행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

그는 이런 죽음의 고통을 수도 없이 겪고 30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다.  
그 이후에도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 등으로 평생토록 평안과 고통이 교차하는 사람을 살았다.  
유의해야 할 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울증, 스트레스, 가정의 고난, 비방, 증상모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인임에도 죄를 짓기도 하고 웃고 울며 고통과 평안이 교차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오늘 루이 잠페리니 영화의 제목대로 하면 그는 ‘결코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David was unbroken. (\*)

#### 왜 다윗은 부서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 소망을 주셨다. 시8편,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심을 알았다(8:4).  
시22편, 그는 메시아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  
시16편, 그는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알았다.

이사야서 52장 14절,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서지셨다.

Jesus was broken. (\*)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말씀 고전11장 23-24

23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고 찢김으로써 우리가 대신 속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예수님이 broken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언브로큰이 된 것이다.

내가 잘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고후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모든 고통, 우울감, 우울증, 죄, 스트레스, 인생의 모든 고난, 비방과 모략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수려 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서지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결코 부서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오늘 제목을 늘 기억하라. 예수님의 '브로큰', '나의 언브로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서지셔서 우리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자.